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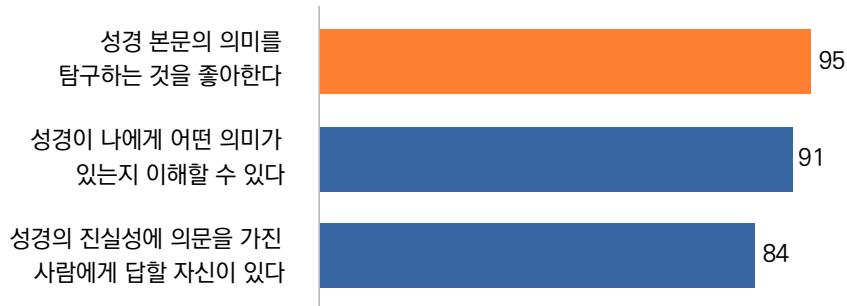


[미국 개신교인의 성경 해석에 관한 인식]

미국 개신교인 10명 중 9명, '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'!

- 라이프웨이리서치(Lifeway Research)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, 미국 개신교인(월 1회 이상 예배 참석자) 95%가 '성경 본문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며', 91%는 '성경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'고 응답했다. 또한 84%는 '성경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답할 자신이 있다'고 밝혔다.
- 미국 개신교인의 성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,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데에도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성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자신감 (2025, 미국 개신교인, N=1200, '매우+약간 동의' 비율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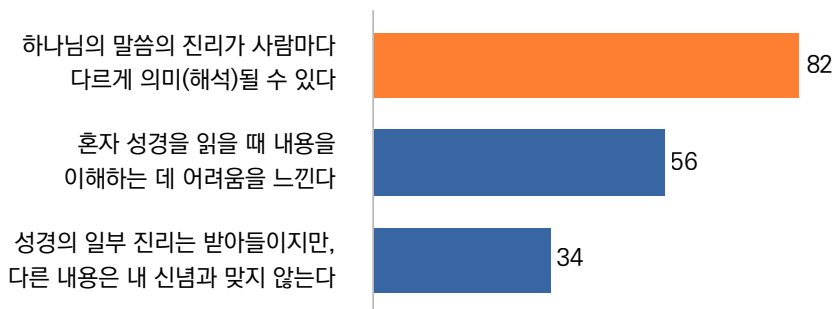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라이프웨이리서치, 개신교 교회 출석자의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, 2025.09.(미국 개신교인 중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자 12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09.02.~09.07.)

*4점 척도

미국 개신교인 절반 이상(56%), '혼자 성경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'!

- 미국 개신교인의 82%는 '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마다 다르게 의미될 수 있다'고 응답했으며, 56%는 '혼자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'고 응답했다. 또한 34%는 '성경의 일부 진리는 받아들이지만, 다른 내용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'고 응답했다.
- 이는 성경에 대한 주관적·개인적 해석 여지를 넓게 열어두는 경향이 존재하는 한편, 개인이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성경 이해의 어려움과 해석에 대한 인식 (2025, 미국 개신교인, N=1200, '매우+약간 동의' 비율*, %)



※출처 : 라이프웨이리서치, 개신교 교회 출석자의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, 2025.09.(미국 개신교인 중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자 12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09.02.~09.07.)

*4점 척도